

보도 일시	2023. 1. 16.(월) 09:00	배포 일시	2023. 1. 16.(월) 09:00
담당 부서	체육협력관 장애인체육과	책임자	과장 용필성 (044-203-3181)
		담당자	사무관 정종량 (044-203-3179)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코로나 이전(2019년)보다 1.7%포인트 증가

- 문체부,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 발표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10년 만에 2.5배 이상 증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전국 등록 장애인 1만 명(만 10세~69세)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21년 9월~’22년 8월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보균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문체부는 ‘장애인 프렌들리’ 부처로서 장애인이 일상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26.6%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주 2회 이상(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도에는 감소했으나 2022년도에는 26.6%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4.9% 대비 1.7%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10.6%)에 비해 약 2.5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완전 실행자 비율을 보면 남성(27.4%)이 여성(25.1%)보다 2.3%포인트 높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28.1%)가 가장 높고 10대(18.1%)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최근 1년간, 재활치료 이외 목적, 1주일 2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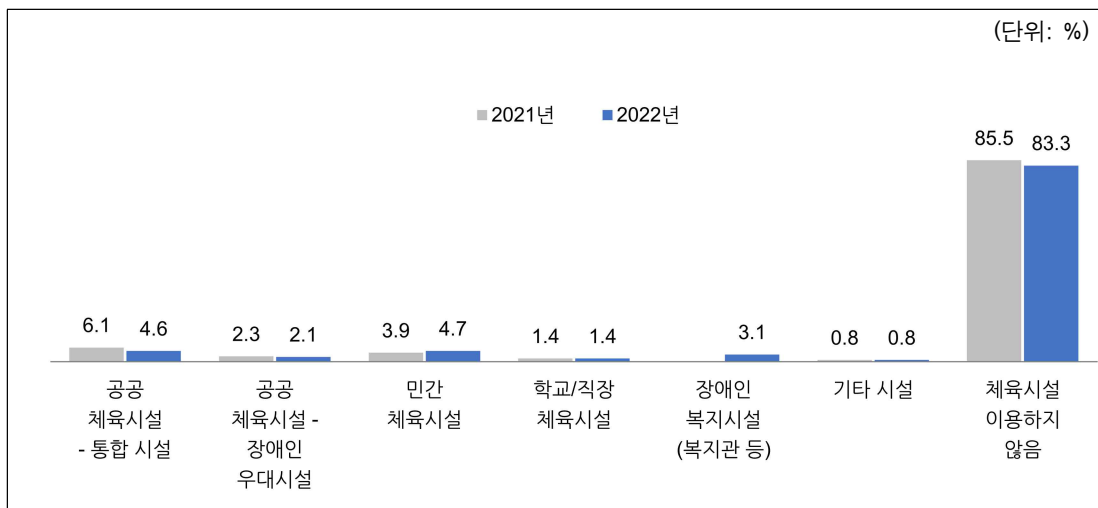
<완전 실행자 비율 / 연도별 추이>



주로 이용하는 운동 장소는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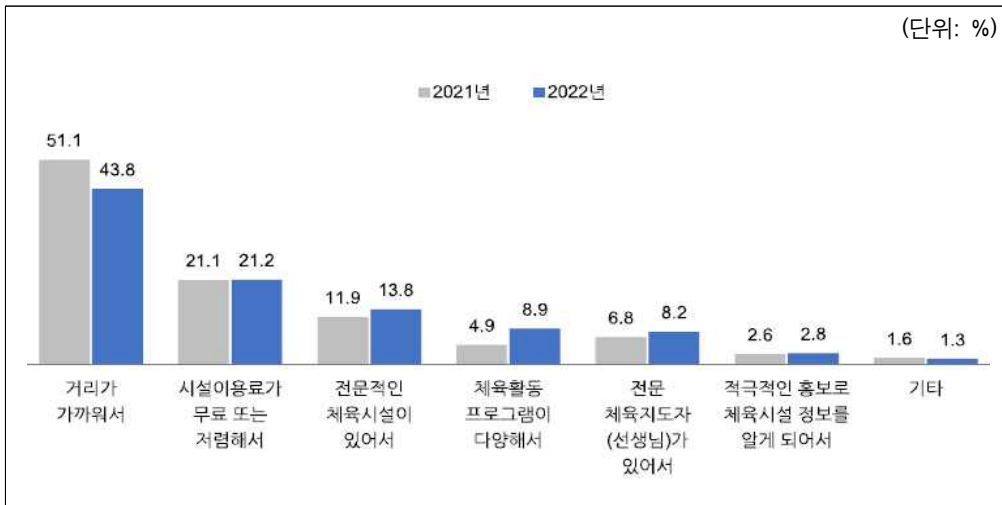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운동 장소는 ‘근처 야외 등산로/공원’이 45.7%로 가장 많았다. 체육시설 이용률은 16.7%로 나타났으며, 체육시설 이용률이 여전히 낮은 주요 이유는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28.6%), ‘시간이 부족해서’(14.2%), ‘체육시설과 거리가 멀어서’(12.9%) 순으로 파악됐다. 체육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이용한 시설에 대해 물은 결과 ‘민간 체육시설’이 4.7%로 가장 많고 ‘공공 체육시설-통합 시설’(4.6%), ‘장애인 복지시설’(3.1%) 순으로 조사됐다.

<체육시설 이용률>



장애인이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유는 ‘거리가 가까워서’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시설 이용료가 무료 또는 저렴해서’(21.2%), ‘전문적인 체육시설이 있어서’(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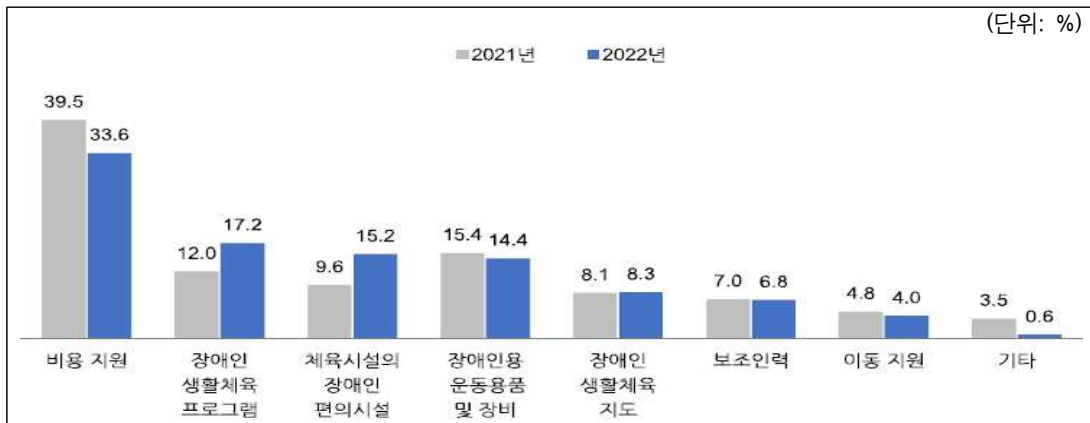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유>



운동 경험자 중 33.6%가 운동 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비용 지원 선택

운동 경험자들에게 운동 시 가장 필요한 사항은 ‘비용 지원’이 3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17.2%),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15.2%),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14.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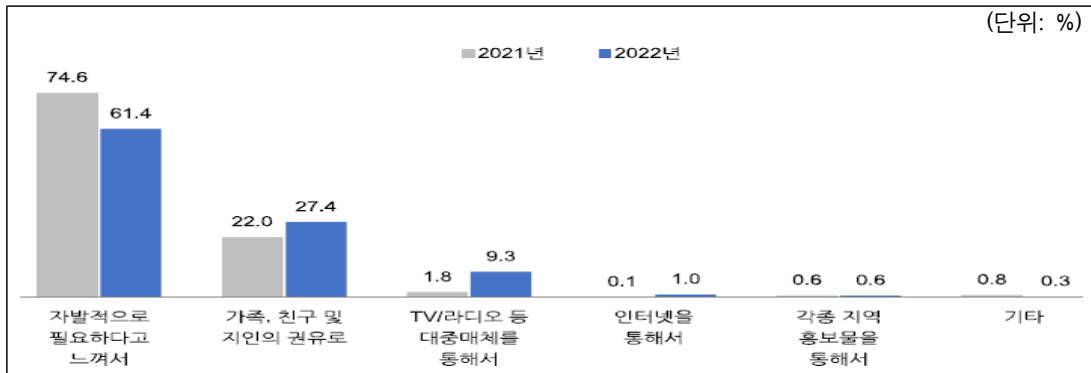
<운동 시 가장 필요한 사항>



운동 경험자들의 운동 참여 주요 동기는 ‘자발적 필요’가 가장 많아

운동 경험자들의 운동 참여 동기는 ‘자발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서’라는 응답이 61.4%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친구 및 지인 권유’(27.4%),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9.3%), ‘인터넷’(1.0%) 순으로 조사됐다.

<운동 참여 동기>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확충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와 지원 기간,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주요내용

- (접근성 제고) ▲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원(신규건립지 14개소 목표), ▲ 체육시설 접근성 낙후지역 대상 ‘장애인 스포츠버스’ 운영(62개소), ▲ 학교체육 시설의 장애인 이용 개방 지원(13개소)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 월 지원금 인상(‘22년 8만 5천 원→‘23년 9만 5천 원), ▲ 지원 기간 연장(‘22년 10개월→‘23년 12개월), ▲ 수혜자 확대(‘22년 1만 명→‘23년 1만 4천 명)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에 재가·중증·고령층 장애인 등 맞춤형 생활체육 지도를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1,000명)
- (체력측정 및 맞춤형 운동 지원)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신규 개소(2개소)
- (장애인체육 가상현실 체험관 조성) 장애인체육을 낯선, 공간 등과 관계없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3개소)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 보고서는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주요정책/분야별정책/체육), 문화센터(stat.mcst.go.kr),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1월 말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주요 결과

담당 부서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책임자	과장	용필성 (044-203-3181)
		담당자	사무관	정종량 (044-203-3179)
<공동>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부	책임자	부장	신원상 (02-3434-4505)
		담당자	차장	박남필 (02-3434-4512)

□ 조사 개요

- (조사목적) 장애인 생활체육의 참여 현황, 체육시설, 참여 시 애로사항 등 실태와 현황을 파악해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조사내용) 건강 및 체력, 체육활동 및 여건, 생활체육 실행 실태, 생활체육에 대한 정보와 혜택, 생활체육 비실행 실태
- (조사기준 시점) 2021년 9월 ~ 2022년 8월
- (조사기간) 2022년 9월 ~ 2022년 11월
- (조사대상) 전국 만 10세 이상 69세 이하 등록 장애인
- (조사 표본) 10,000명
- (조사방법) 1:1 개별방문 면접조사 원칙, 필요시 전화, 유치조사 등 병행
- (조사주기) 연 1회

□ 주요 조사 결과

1. 건강 및 체력

가.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

- ‘보통이다’ 응답이 40.8%로 가장 많고, 좋다는 인식은 34.6%(매우 좋다 1.7%+ 좋다 32.9%), ‘좋지 않다’는 응답은 24.6%(전혀 좋지 않다 2.6% + 좋지 않다 22.0%)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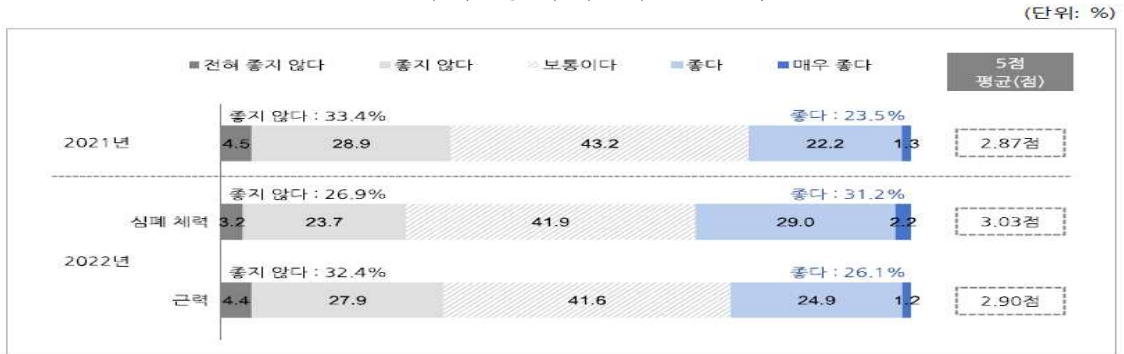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



나. 체력 상태에 대한 인식

- 체력 상태에 대한 인식을 심폐 체력과 근력으로 나누어 질문한 결과, 심폐 체력이 ‘좋다’는 응답은 29.0%, 근력이 ‘좋다’는 응답은 24.9%로 조사됨

<체력 상태에 대한 인식>



2. 체육활동 및 여건

가.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 인지도

- 본인의 생활권 주변의 체육시설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55.4%로 나타남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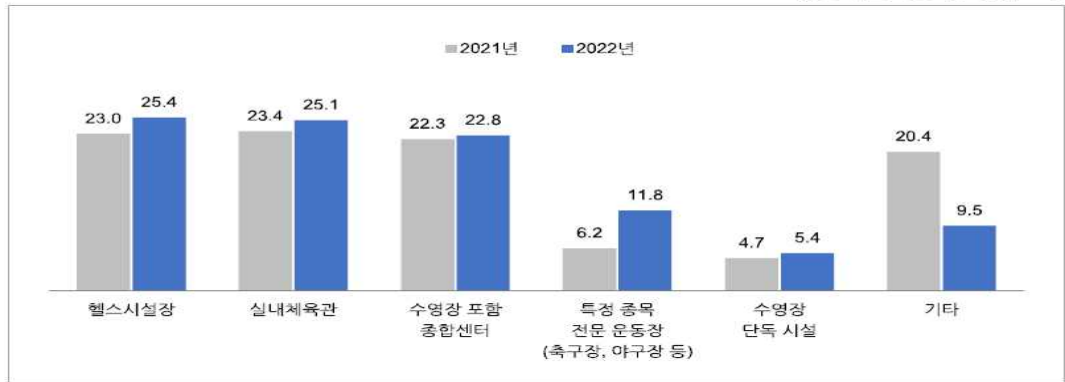


나. 주 이용 운동 장소 및 구체적인 이용 장소

- 주 이용 운동장소는 ‘야외 등산로/공원’이 45.7%로 가장 많고, ‘체육시설’(16.7%), ‘집안(자가시설 및 실내활동)’(15.8%) 순으로 나타났으며,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이용장소에 대해 물어본 결과 ‘헬스시설장’이 25.4%로 가장 많으며, ‘실내체육관’ (25.1%), ‘수영장 포함 종합센터’(22.8%) 순으로 나타남

<구체적인 이용 장소>

(체육시설 이용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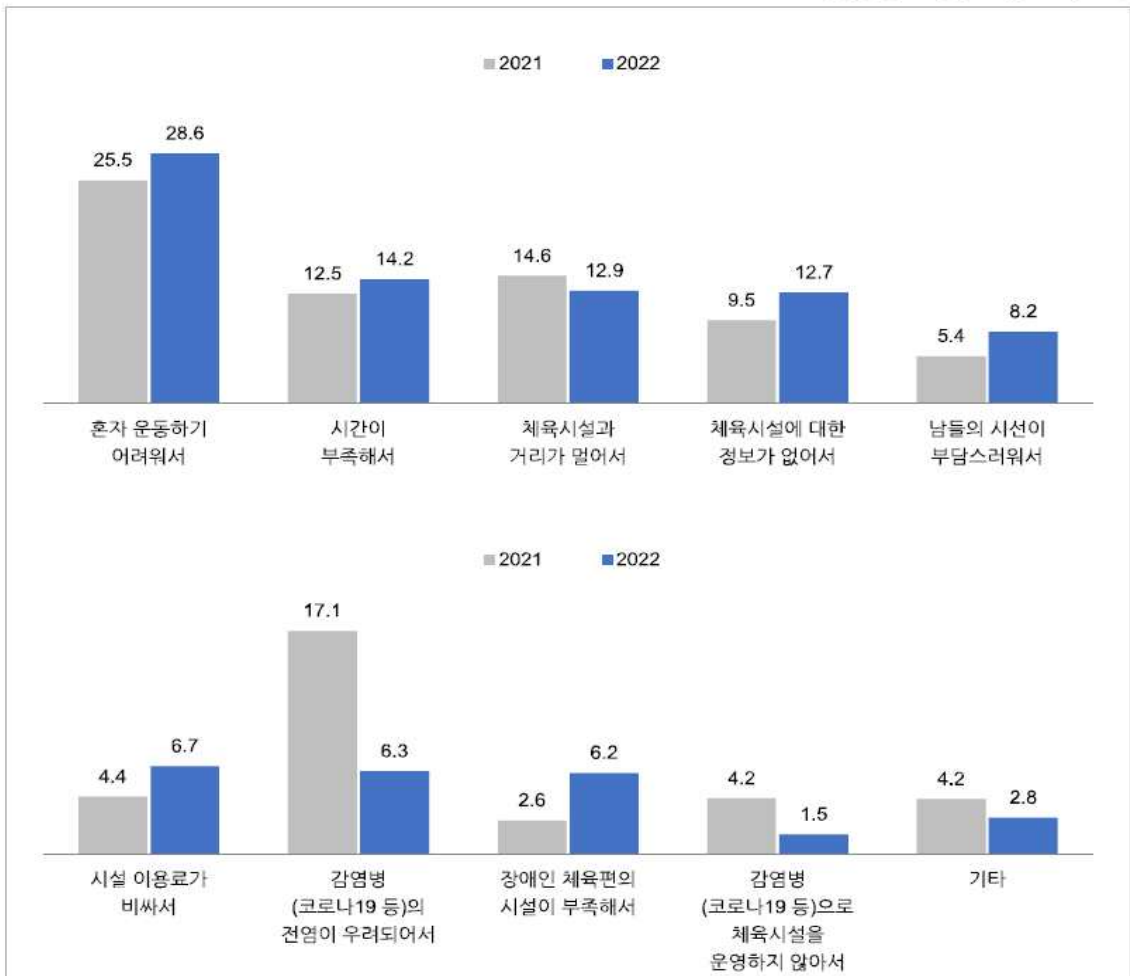


다.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가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이 부족해서’(14.2%), ‘체육시설과 거리가 멀어서’(12.9%) 순으로 나타남. 장애정도별로 보면 중증은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44.5%), 경증은 ‘시간이 부족해서’(20.7%) 응답이 가장 많음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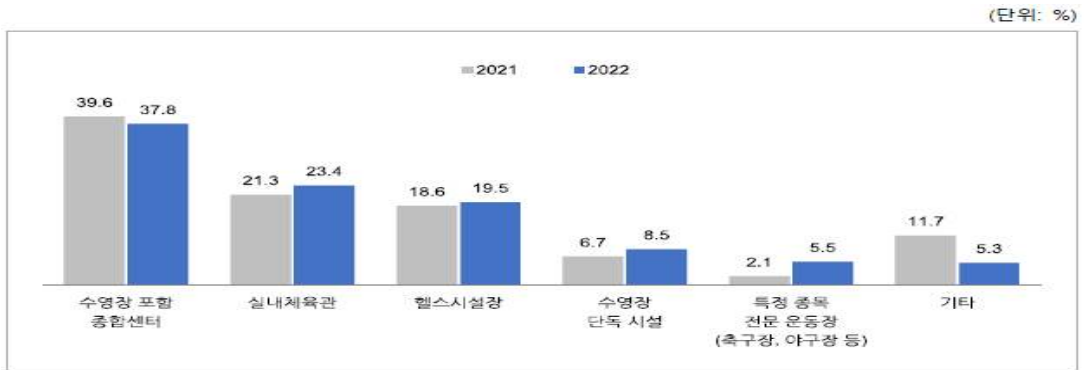
(체육시설 비이용자, 단위 : %)



라. 생활권 주변 이용하고 싶은 구체적인 체육시설

- 생활권 주변 이용하고 싶은 구체적 체육시설로 ‘수영장 포함 종합 센터’가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내체육관’(23.4%), ‘헬스 시설장’(1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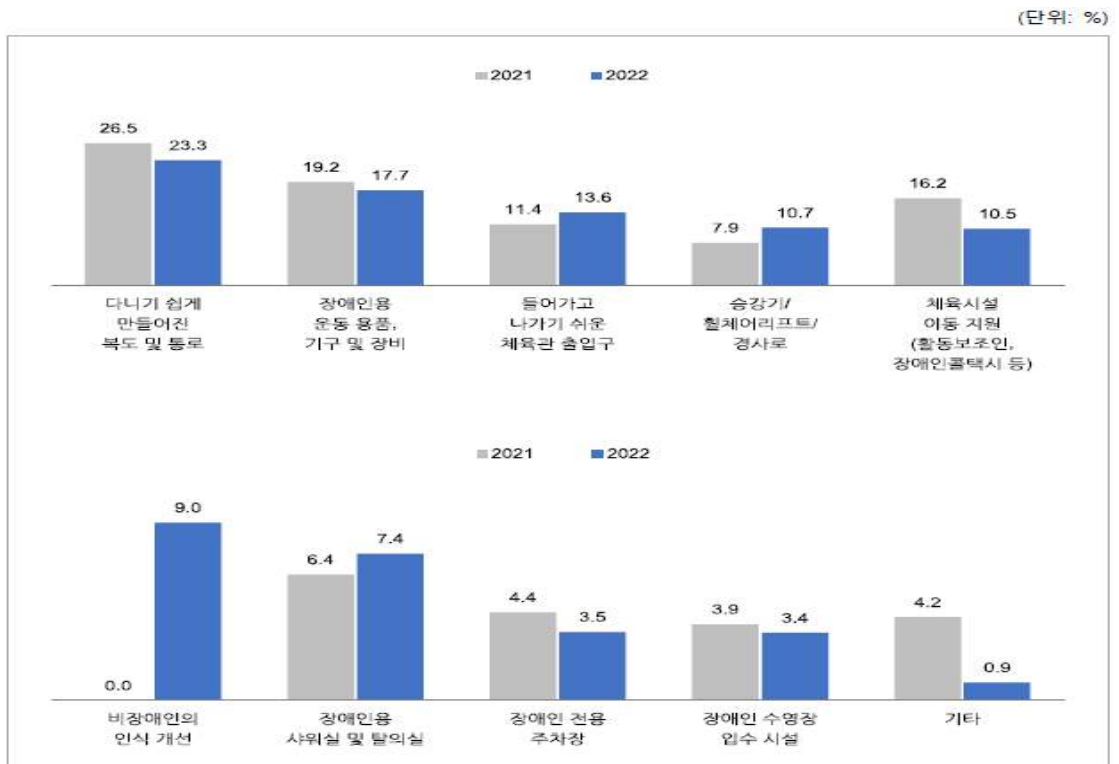
<생활권 주변 이용하고 싶은 구체적인 체육시설>



마. 체육시설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설

- 체육시설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설로는 ‘다니기 쉽게 만들어진 복도 및 통로’가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용 운동 용품, 기구 및 장비’(17.7%), ‘들어가고 나가기 쉬운 체육관 출입구’(1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체육시설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설>



3. 생활체육 실행 실태

가. 생활체육 실행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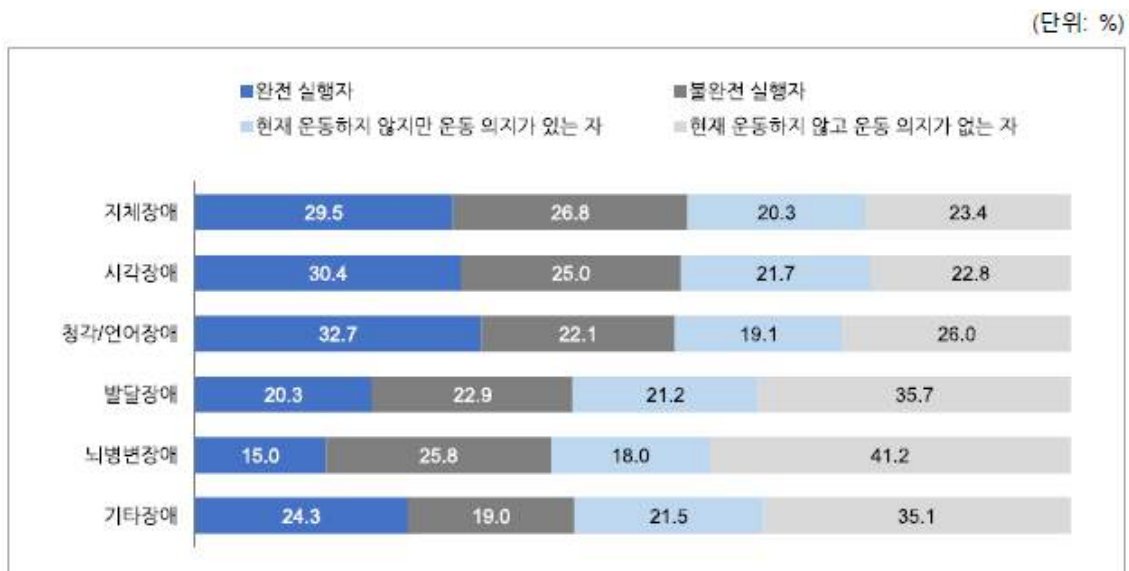
- 생활체육 실행 유형을 보면 ‘완전 실행자’는 26.6%로 나타났으며, ‘불완전 실행자’는 24.6%, ‘현재 운동하지 않지만 운동 의지가 있는 자’(20.4%), ‘현재 운동하지 않고 운동의자가 없는 자’(28.4%)로 나타남

<생활체육 실행 유형>



- 장애유형별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 유형을 살펴보면 ‘청각/언어장애’의 ‘완전 실행자’ 비율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각장애’(30.4%), ‘지체장애’(29.5%), ‘기타장애’(24.3%), ‘발달장애’(20.3%), ‘뇌병변장애’(15.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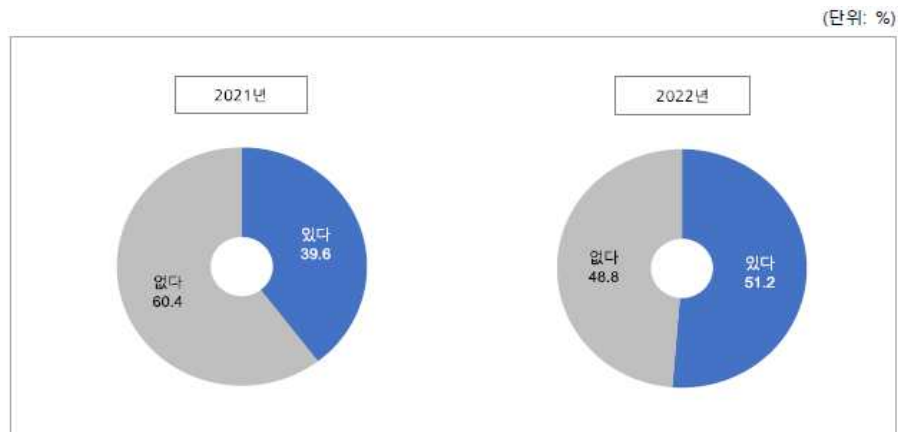
<장애유형별 생활체육 실행 유형>



나.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여부

-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여부를 물어본 결과, 운동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1.2%, 운동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48.8%로 나타남, 성별로 보면 남성(52.2%)이 여성(49.3%) 대비 운동 경험이 많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54.7%)의 운동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10대(44.0%)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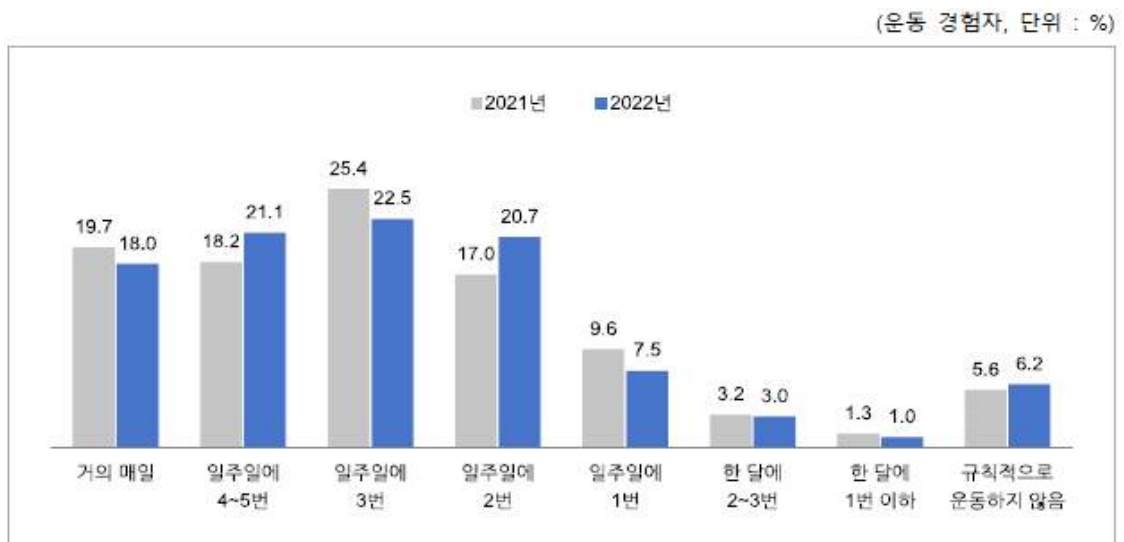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여부>



다. 운동 횟수

- 운동 횟수는 ‘일주일에 3번’이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주일에 2번’(20.7%), ‘일주일에 4~5번’(2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거의 매일’ 운동한다는 응답은 남성이 18.0%, 여성이 18.1%로 비슷한 수준이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거의 매일’ 응답이 2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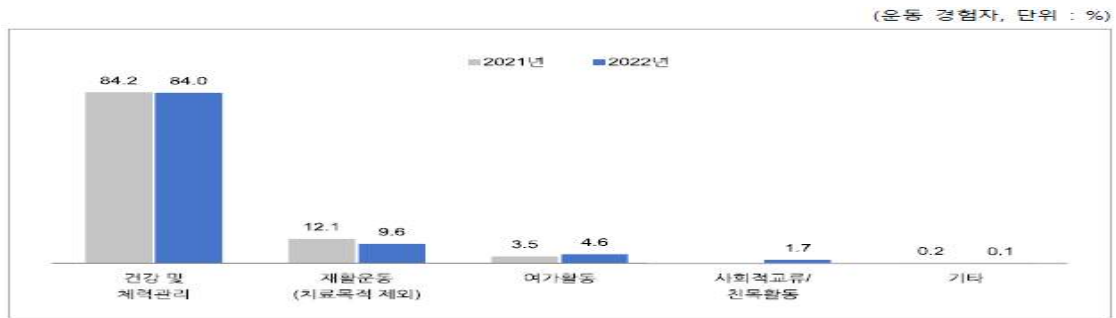
<운동 횟수>



라. 운동 목적

- 운동 목적을 살펴보면, ‘건강 및 체력관리’ 응답이 84.0%로 가장 많으며, ‘재활운동’(9.6%), ‘여가활동’(4.6%), ‘사회적 교류/친목활동’(1.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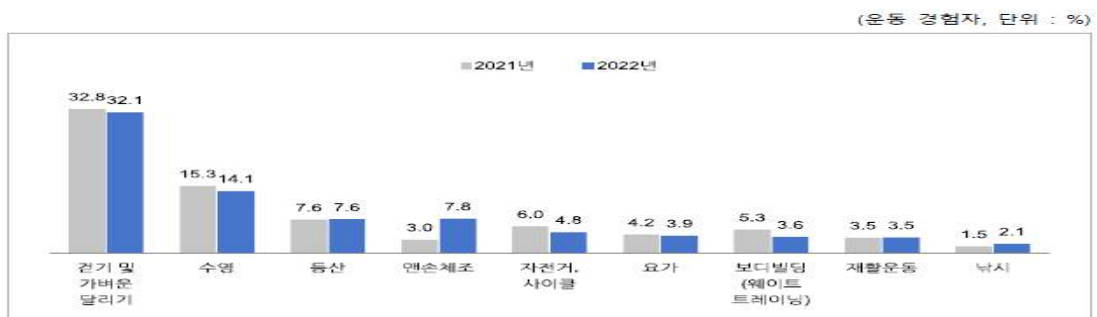
<운동 목적>



마. 희망 운동 종목

- 운동 경험자들에게 시간/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희망하는 운동을 조사한 결과, ‘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가 32.1%로 가장 많았으며, ‘수영’(14.1%), ‘맨손 체조’(7.8%), ‘등산’(7.6%) 순으로 나타남

<희망 운동 종목>



바. 운동을 통해 얻는 효과

- 운동을 통해 얻는 효과를 4가지 항목으로 물어본 결과, ‘신체적 건강 유지’ 항목에 대해 ‘효과 있다’는 응답이 82.8%로 가장 많으며 ‘정신적 건강 유지’(74.9%), ‘일상생활에 도움’(66.5%), ‘의료비 절감’(61.4%)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운동을 통해 얻는 효과>



4. 생활체육 비실행 실태

가. 운동 참여 의향

- 최근 1년간 운동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운동 비경험자들에게 향후 운동 참여 의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현재로서는 전혀 운동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58.1%로 가장 많으며, ‘6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운동할 생각이 있다’ 29.1%, ‘6개월 안에 운동할 생각이 있다’ 7.7%, ‘1개월 안에 운동할 생각이 있다’는 4.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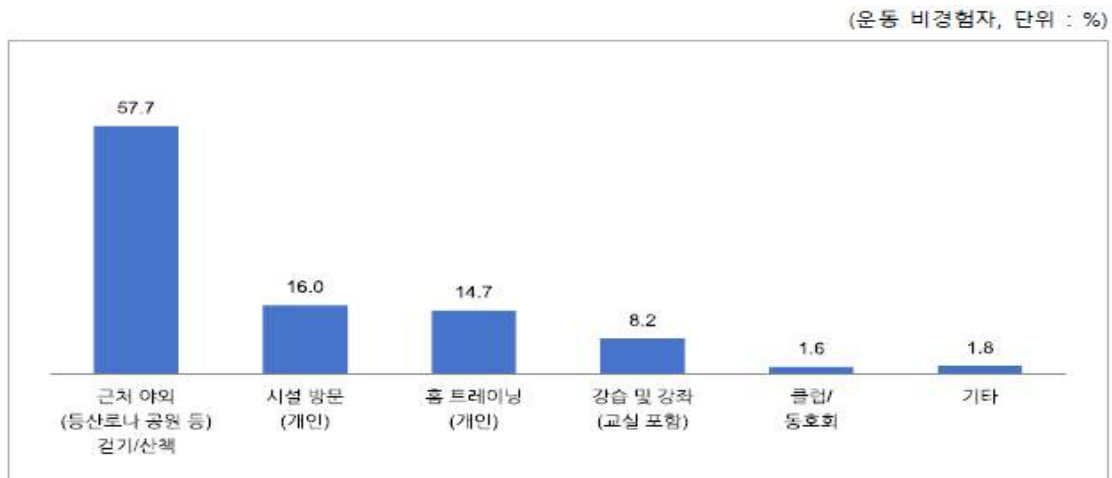
<운동 참여 의향>



나. 운동 참여 시 희망 방식

- 만약 운동에 참여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은지 물어본 결과, ‘근처 야외 걷기/산책’ 응답이 57.7%로 가장 많으며, ‘시설 방문’(16.0%), ‘홈 트레이닝’(14.7%), ‘강습 및 강좌’(8.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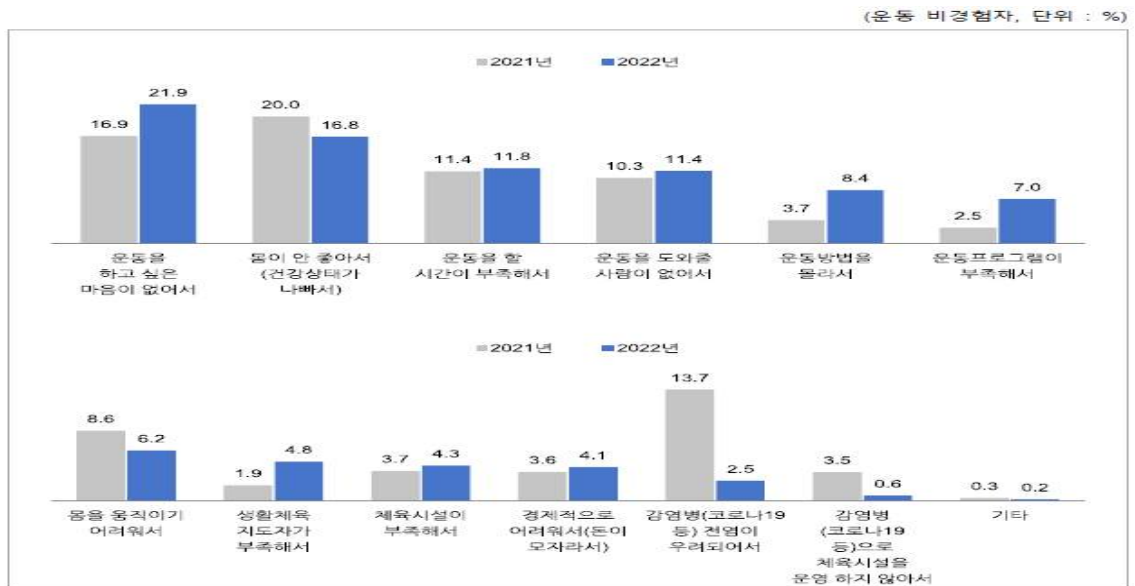
<운동 참여 시 희망 방식>



다.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 운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응답이 21.9%로 가장 많으며, ‘몸이 안좋아서’(16.8%), ‘운동을 할 시간이 부족해서’(11.8%), ‘운동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11.4%) 순으로 조사됨. 남성의 ‘운동을 할 시간이 부족해서’ 응답은 13.3%로 여성(9.1%) 대비 응답 비율이 높으며, 10대는 ‘운동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응답이 16.9%로 다른 연령대보다 많이 응답됨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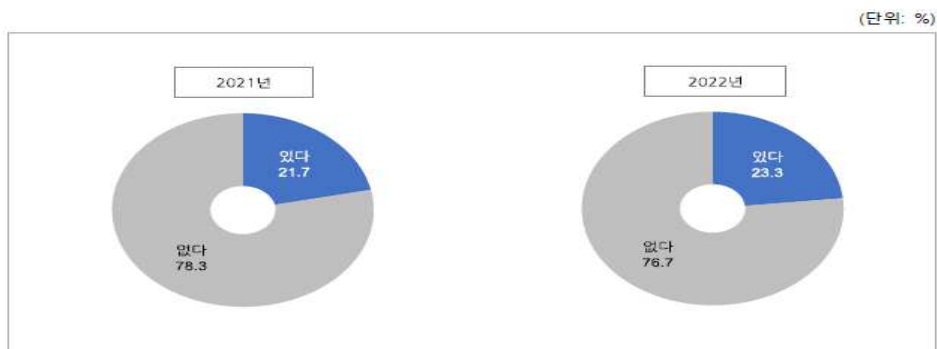


5. 생활체육에 대한 정보와 혜택

가. 생활체육 관련 정보습득 경험 여부

- 모든 응답자에게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정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3.3%가 ‘있다’고 응답

<생활체육 관련 정보습득 경험 여부>



나. 생활체육 관련 정보습득 경로

- 생활체육 관련 정보습득 경로를 물어본 결과, ‘TV/라디오 등의 매체 광고’ 응답이 58.5%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매체를 통해 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신문/인터넷 기사’(9.0%), ‘인터넷 (포털, SNS)’(7.4%), ‘장애인 복지시설’(7.4%), ‘가족/친지’(6.6%) 순으로 답변

<생활체육 관련 정보습득 경로>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정보습득 경험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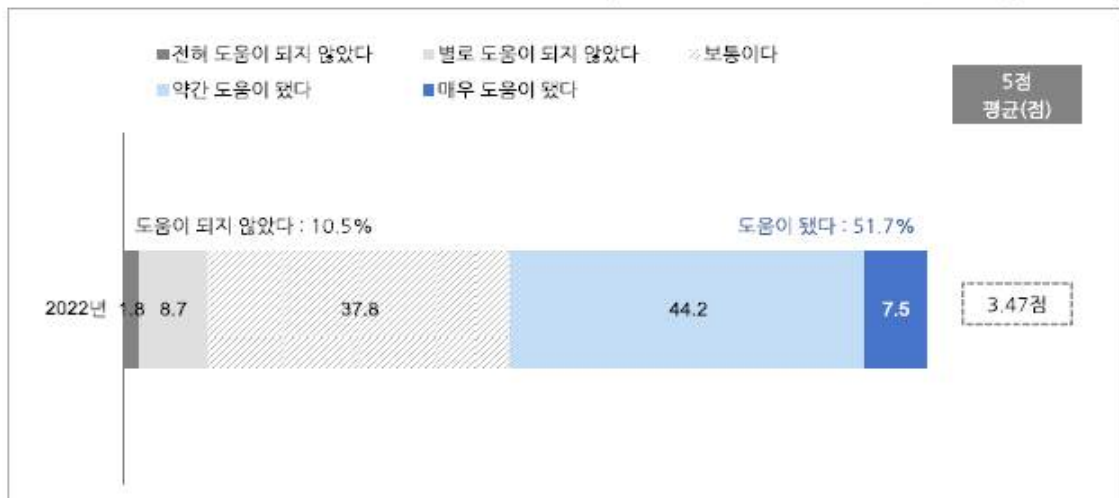


다. 생활체육 관련 정보 도움 정도

- 생활체육 정보 습득자들의 절반 이상(51.7%)은 정보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으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10.5%, ‘보통이다’ 평가는 37.8%로 나타남

<생활체육 관련 정보습득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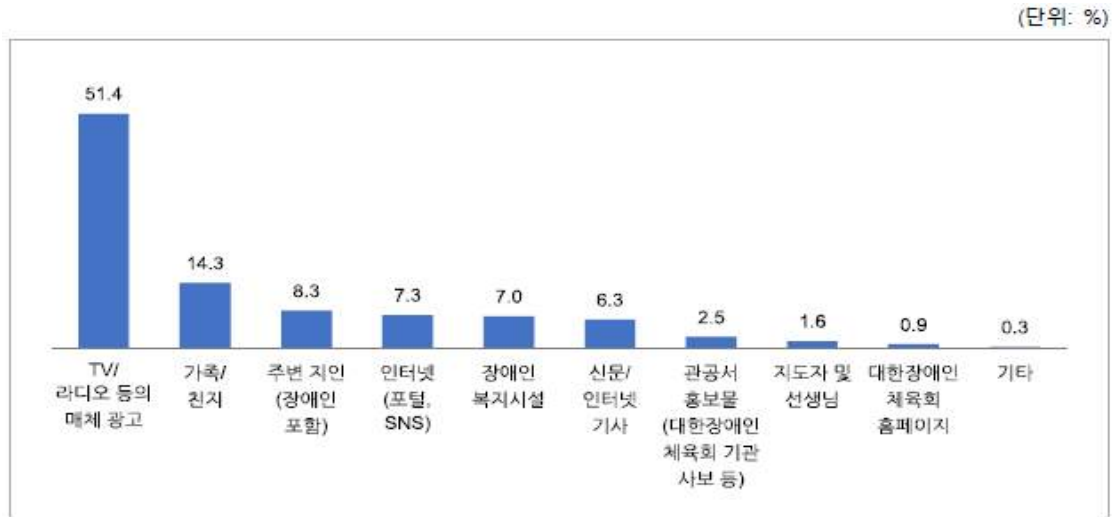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정보습득 경험자, 단위 : %)



라. 가장 좋은 생활체육 관련 정보 습득 매체

-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장 좋은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정보 습득 매체를 조사한 결과, ‘TV/라디오 등의 매체 광고’가 51.4%로 나타났으며, ‘가족/친지’(14.3%), ‘주변 지인’(8.3%), ‘인터넷(포털/SNS)’(7.3%), ‘장애인 복지시설’(7.0%) 순으로 나타남

<가장 좋은 생활체육 관련 정보 습득 매체>



마. 가장 중요한 장애인 체육 정보

- 가장 중요한 장애인 체육 정보는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장애인 체육 지원 제도’가 35.8%로 가장 많이 응답됐으며,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25.2%), ‘운동시설 관련 정보’(23.6%), ‘장애인 체육 종목 소개’(11.5%) 순으로 응답

<가장 중요한 장애인 체육 정보>

